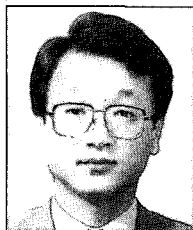


SI-1

Prosthodontic Treatment in Periodontally Compromised Dentition; Introduction and Overview



정 현 영

1977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0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보철과 전공의 수료
 1986 : 치의학박사
 1989 - 현재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치주조직의 상태가 이상적이지 못한 경우에 환자가 치료방법을 의논하고자 한다면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각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지지조직이 약해진 환자에서 보철물을 고려할 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철성 의치보다는 고정성의치가 유리하다. 고정성 의치는 가철성 의치에 비해 어느정도 견고하며, 치주조직에 힘의 분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비용을 염려한다면 가철성 보철물을 설계할 수도 있으며, 상태가 아주 나쁘다면 overdenture도 고려할 수 있다.

치주가 건강치 못한 치아에 보철치료를 했을 때 보철물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는 (일반적인 보철물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외에도) 건강한 치아의 숫자와 위치, 적절한 교합 형성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며, 환자가 자신의 구강위생을 잘 유지하는 것도 (일반적인 보철물의 경우에서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서의 치료는 우선 진행되고 있는 치주질환을 control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 심미성
- dentogingival interface
- 구조적인 약점
- splinting 방법
- 교합